

1월 22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월 2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뉴욕증시, 은행株 랠리 [다우: 8,228.10pt (+ 3.51%)]</p>	<p>폭락세를 보였던 은행주들이 반등을 주도했고, 이에 힘입어 다우 지수도 하루만에 8,000선을 다시 회복하며 뉴욕증시가 21일(현지시간) 급반등세로 돌아섰음. 다우 지수 구성종목이자 세계 최대 컴퓨터 서비스 업체인 IBM이 분기실적 호재로 개장초부터 급등세를 보인 점도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을 줬음.</p>
<p>티모시 "배드뱅크도 하나의 방안"</p>	<p>티모시 가이트너 美 재무부 장관 내정자는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배드뱅크(Bad Bank)가 美 신용위기를 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음.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된 여신 및 채권을 전문적으로 인수해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깨끗하게 만드는 기관임.</p>
<p>금융주 폭락 하루만에 반등</p>	<p>전날 폭락세를 기록한 금융주들이 반등세를 보였음. 다우 지수 구성종목으로 전날 28% 급락했던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30%나 폭등세를 연출했음. 역시 다우 지수 종목인 씨티그룹과 JP모건체이스도 각각 31%와 25%가 넘는 급등세를 기록했고, 골드만삭스도 강세로 장을 마쳤음.</p>
<p>모기지 차환신청 급증.. 주택경기는 여전히 부진</p>	<p>미국 모기지은행연합회(MBA)는 지난주(9일 마감기준) `모기지 신청 인덱스`는 1,324.8(계절조정)을 기록, 전주보다 16%나 증가했다고 밝혔고, 이는 2003년 7월 1,143.8을 기록한 이후 5년래 최고 수준임. 그러나 주택구입을 위한 신청건수는 14%가 감소해 미국의 주택시장 부진이 2009년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p>
<p>국제유가 반등 [WTI: \$43.55 (+ \$2.71)]</p>	<p>석유수출국기구(OPEC)이 유가를 부양하기 위해 생산량 감축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영향을 미쳐 국제유가는 반등세로 돌아섰음.</p>
<p>英.佛 증시, 사흘 연속 하락</p>	<p>영국과 프랑스 주식시장이 사흘 연속 약세를 기록한 반면 독일의 주가는 모처럼 상승. 21일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의 핵심지수 FTSE100은 전일대비 0.77% 하락, 4,059.88로 장을 마쳤고 프랑스 파리증권거래소의 CAC40 주가지수는 0.67% 하락한 2,905.57로 마감.</p>
<p>佛 105억유로 2차 은행 구제금융</p>	<p>프랑스 정부가 자국의 6대은행에 105억유로(135억달러) 규모의 2차 구제금융을 투입하기로 함. 정부의 구제금융 대가로 은행 CEO들은 지난해 실적에 근거한 성과급 보너스를 모두 포기하기로 함.</p>

제목	주요 내용
英.佛 증시, 사흘 연속 하락	영국과 프랑스 주식시장이 사흘 연속 약세를 기록한 반면 독일의 주가는 모처럼 상승. 21일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의 핵심지수 FTSE100은 전일대비 0.77% 하락, 4,059.88로 장을 마쳤고 프랑스 파리증권거래소의 CAC40 주가지수는 0.67% 하락한 2,905.57로 마감.
佛 105억유로 2차 은행 구제금융	프랑스 정부가 자국의 6대은행에 105억유로(135억달러) 규모의 2차 구제금융을 투입하기로 함. 정부의 구제금융 대가로 은행 CEO들은 지난해 실적에 근거한 성과급 보너스를 모두 포기하기로 함.
英실업률 10년만에 최고	영국의 작년 9~11월 실업자가 192만명에 달해 1997년 9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 영국 국가통계청은 9~11월 실업률이 6.1%에 달했다고 21일 발표.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0.9% 포인트, 직전 분기보다 0.4% 포인트 상승한 것. 6.1%의 실업률은 1999년 이래 10년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
추락하는 일본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자"	일본 경제가 버블붕괴 시기에 버금갈 정도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음. 그런 가운데 작은 정부·큰 시장을 특징으로 하는 '신(新)자유주의 구조개혁'에 대한 반동(反動)의 바람이 일본 사회 전반에서 거세지고 있음. 일본 정부는 20일 발표한 '월례경제보고'에서 현재의 경기 상황을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표현함.
4분기 GDP -5.6% 성장..외환위기 이후 최악	작년 4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3분기 대비 -5.6%의 성장률을 기록,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을 낸 것으로 나타남. 민간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근 11년만에 가장 부진함을 보였고, 그동안 경제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약 30년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경제는 급속하게 위축되는 양상을 보임.
대우조선 파장...대어급 M&A 향방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하이닉스, 현대건설등 대기 중인 대형 인수합병(M&A)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하이닉스와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간사인 외환은행은 "계획대로 M&A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만, 자금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딜이 깨지면서 M&A시장 심리는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 다만, 대우조선 재입찰이 최소 1~2년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나 현대건설 M&A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워크아웃 건설사, ABCP 1.8조..돌발 변수 되나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이 지급보증이나 채무인수약정을 제공한 유동화증권 발행액이 1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이 가운데 상당액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중소기업회사나 일반법인, 개인 등이 보유한 것일 수 있어 워크아웃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